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5장 정의란 좋은 것인가 I

◆ 1교시 좋음과 정의

▲ 논박술의 실패를 인정하는 소크라테스

그런, 그 지금 이것은 또 제 해석인데요. 텍스트에서 그런 근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2권 시작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권 끝나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마지막으로 트라시마코스하고 이야기를 하죠. 트라시마코스랑 소크라테스가 정의하고 부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트라시마코스는 부정의가 더 이득이 된다. 훌륭한 삶을 살려면 부정의해야 한다. 다만 짜질이처럼 부정의하게 행동하고서 걸리고 그러지 말고 크게, 부정의를 크게 해라. 이런 것, 그것이 진짜 훌륭한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부정의를 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부정의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논파했어요. 트라시마코스가 너 이겼어, 뭐 이렇게 트라시마코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소크라테스가, 1권 마지막을 보면, 여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그 읽었던 부분. “소크라테스 선생, 이거야말로 벤디스 여신의 축제일이 선생을 위한 축하잔치로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면서 졌다, 너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이 잔치가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좀 건너뛰면요. “그렇지만 실은 이 잔치가 흡족하지는 못했는데, 식탐하는 사람들이 날라 오는 음식마다 미쳐 앞의 것을 적절히 즐기기도 전에 남아채듯 받아서 맛보듯이, 나 또한 내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소. 처음에 검토하는 것을 즉 올바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도 전에...”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그 정의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박종현 선생님은 올바른 것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요. “정의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도 전에 그것은 내버려둔 채로 그것이 나쁨이며 무지인가. 지혜이면 훌륭한 인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소.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올바르지 못함이 올바름보다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에 부딪치게 되니까 나는 앞의 문제에서 이 문제로 다시 옮겨가지 않도록 자제하지도 못했소, 그래서 지금의 나로서는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게 된 것이 없는 꼴이 되었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이 일종의 훌륭한 덕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닌 이가 불행한지 아니면 행복한지도 내가 알게 될 가망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러면서 1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정의가 부정의보다 이득이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논박을 했던 말이에요. 그 반대 주장을 트라시마코스도 논박을 했지만 정의가 도대체 뭔지를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정의가 도대체 훌륭한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되지 않는지, 이런 논의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썩 만족스런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 글라우콘의 문제제기 - 실천으로 이어지는 설득

그리고 나서 2권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말을 하고서 어쨌든 이 논의에서 해방되었거니 생각했었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서론인 것 같았네.” 이제 이야기가 끝난 줄 알고서 그랬는데, 글라우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만사에 대해 언제나 제일 담대한 글라우콘이 특히 이번에도 트라시마코스의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했기 때문일세. 아,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올바르게 못한 것 보다는 올바른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저희한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설득하신 듯이 보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설득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득한 것처럼 보이기를 바라냐, 진정으로 설득한 것을 바라냐.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으로 설득한 것을 바란다. 그러면 지금 설득한 것처럼 보였을 줄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설득한 것은 아닙니다. 글라우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설득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설득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설득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설득이 되었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것을 하죠. 좋지 않은 것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누구도. 『국가』 편에 중요한 계기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아, 나는 마음대로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살래.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냐?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 그 나라가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내 속만 챙기면서 살겠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산다. 반대로 내가 좀 어떤 불편함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 남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겠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설득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래그래 나 설득되었어, 너 이겼어, 그러면서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부정한 것보다 정의로운 것이 좋아. 오케이, 너 이겼어, 정의로운 것이 부정한 것보다 좋다, 나 설득되었다, 그리고선 정의로운 행동을 안 하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설득된 것이 아니겠죠. 진정으로 정의로운 것이 좋다, 라고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물론 즉 뭐 평생 동안 정의로운 삶만, 정의로운 행동만 계속 하면서 산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삶이 좋다고 설득이 되었다면. 그렇죠?

▲ 글라우콘이 제시하는 좋음의 세 가지 분류

그래서 이제 지금 2권에서 글라우콘은 바로 플라톤의 형입니다. 플라톤의 형이고, 2권부터 10권까지의 논의에서 중요한 대화 상대자입니다. 또 다른 상대자 아데이만토스 역시 플라톤

의 형이예요. 글라우콘하고 아데이만토스가 형제인데 둘 다 플라톤의 친형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국가』 2권부터 10권까지의 중요 대화 상대자, 소크라테스의 주요 대화 상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글라우콘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가 그 자체로,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좋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글라우콘은 그, 바로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좋은 것을 세 가지로 글라우콘이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자체로 좋은 것, 두 번째로는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 세 번째로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예를 들어요.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 혹은 뭐 좋은 것, 선택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말하고 선택되는 것이라는 말하고 이제 서로 그 교환가능한 말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자체 때문에 선택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도 선택되고 결과 때문에도 선택되는 것, 그 결과 때문에만 선택되는 것. 처음에 그 1번의 예로 그 자체 때문에 선택되는 것, 그 자체로 좋은 것의 예로 기쁨이라든지, 해롭지 않은 즐거움, 지식 같은 것. 잠깐만요. 지식은 두 번째네요. 기쁨하고 해롭지 않은 즐거움만 얘기하고 있네요, 기쁨이나 해롭지 않은 즐거움. 두 번째로 그 자체 때문에도 좋고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지혜, 건강,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결과 때문에 좋은 것, 결과 때문에 선택되는 것은 신체를 단련한다든지, 뭐 치료를 받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해롭지 않은 즐거움,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은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해로운 즐거움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떤 해롭지 않은 즐거움, 무해한 어떤 즐거움 그 자체. 즐거운 것이 무슨 어떤 결과를 산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지혜나 건강이나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건강하면 그걸로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많이 알게 되는 것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되고요.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별로 뭐 좋은 일이 아니죠.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좋을 것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받는 병원에 가서 어떤 수술을 받는다, 치과에서 뽕뽕을 한다, 그 자체로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수술을 받아서 어떤 건강을 찾게 되면, 그것이 좋은 거죠.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죠. 뭐 신체를 단련해가지고 몸이 튼튼해지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과 때문에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좋은 것을 분류를 하고요.

▲ 정의는 어떤 좋음에 속하는가

과연 정의(justice)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 대해서 정의가 여기에,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라우콘은 그게 아니라 정의는 그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 정의로운 행동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별도 안 받고, 또 벌만 안 받는 것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성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체, 정의로움 자체로는 신체 단련이나 이런 것처럼

수고스럽고 좀 힘들고 이런 것이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글라우콘과,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에게 글라우콘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정의를 보통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도 좋고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요구를 소크라테스에게 하게 되요.

▲ 글라우콘의 비유 - 기계스의 반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글라우콘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정의가, 실제로 정의가 결과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고, 결과 때문에 정의가 이제 좋은 것이라는 근거로 어떤 것을 드는가 하면, 기계스의 반지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게 되요. 어떤 사람이 그 반지를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 반지는 뭐냐 하면, 반지의 제왕 비슷해가지고 그 반지를 끼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지의 제왕보다 더 좋은 것이, 반지의 제왕은 끼면 안 보이고 빼야지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끼고 있다가 뭐를 돌리면 안 보이게 되는, 말하자면 투명인간이 되는 그런 반지란 말이에요. 그런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어떤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겠느냐, 걸리지 않기로 한다면. 그러고 나서... 기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글라우콘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반지를 얻어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비하고 결혼해서 그 나라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글라우콘의 반지 같은 것을 갖게 되면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정의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기계스의, 글라우콘의 반지가 아니라 기계스의 반지요. 기계스의 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이런 저런 제약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면, 그때그때 욕망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부정의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정의한 것의 나쁜 어떤 결과를 없애는 거라는 말이에요. 부정의한 행동하면 걸린다든지, 뭐 저사람 부정의하다는 나쁜 평판을 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평판. 정의의 귀결과 부정의의 귀결들을 제거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정의가 귀결들을 다 빼고 났을 때 과연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 2교시 정의와 행복의 관계

▲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 문제제기의 차이

그 글라우콘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트라시마코스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보다 더 발전시켜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차이는 정의가 그 세 가지 분류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냐, 세 번째에 속하는 것이냐, 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 때문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트라시마코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결과 때문에 좋다, 그 자체로 좋다, 하는 구별을 안했어요. 그냥 부정의가 좋은 것이고 정의가 나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의는 남들한테나 좋은 것,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자에게나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부정의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좋은 것을 얘기할 때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인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인지, 구별을 안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의 경우에는 부정의 보통 나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부정의를 좀 제대로 못해가지고 걸리고 벌 받고 이러면 나쁠 수가 있겠지만, 아주 큰 부정의, 예를 들어서 힘을 가져서... 뭘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거짓말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그런 티 안내고 하고, 혹시 부정의하다는 것이 걸리면 상대방을 죽여 버린다든지 그래서, 없애서 자기가 부정의한 평판도 안 얻게 되고... 뭐 이런 뛰어난 부정의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글라우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체 때문에 좋은 것하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을 구별을 했어요. 구별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부정의한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보면, 부정의한 행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나쁜 결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쁜 평판, 그리고 사람들도 재 부정의한 애다, 재 하고 같이 거래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약속도, 약속해봐야 지키지도 않을 건데, 재 상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찍히면, 뭐 어떤 나쁜 결과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정의롭다는 것, 그 자체로 수고로울지 몰라도 정의로운 어떤 평판을 얻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정의롭게 살면 나름대로 또 그 사회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성을 가지고서 굴러가겠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한테도,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점이 있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결과 때문에는 정의가 일단 좋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야지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결과 때문에 좋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자체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의가 3번에 속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번에 만약에 속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의가 과연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밝혀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의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워 보이면 정의로운 결과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 사람 정의롭다 생각을 하면, 뭐 칭송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의 의미

그러니까 기계스의 반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실제로는 정의롭지 않으면서도 정의로운 평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투명인간, 그 반지를 끼가지고 나쁜 짓 할 때나 부정의한 행동을 할 때는, 투명인간이 되어서 부정의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게 될 때는, 그때 남들 앞에서 이제 투명인간이 아닐 때는 정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행동들 해가지고 정의롭다는 칭송도 다 얻고, 뒤에 가서는 말하자면 이제 그 딴 짓 하고 다니고, 그 대신 투명인간인 상태에서 딴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정의로움의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은 다 얻을 수 있으면서, 부정의한 행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계스의 반지가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 글라우콘의 문제제기의 본질 - 정의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인가

그래서 글라우콘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결과 같은 것 다 빼고 이야기하자. 결과 다 빼고 나서 그 자체로 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하자. 그 자체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을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부정의한 사람의 극치와 정의로운 사람의 극치, 두 사람을 놓고 나서 둘 중에 누가 좋은지를 한 번 따져보자. 부정의한 사람의 극치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부정의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계스의 반지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한 행동은 할 것 다하고 다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의 좋은 결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또 부정의한 행동들을 다 하고, 그것이 이제 부정의한 사람의 극치구요. 정의로운 사람의 극치는 어떤 사람이나면, 오히려 평판은 오히려 부정의한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묵묵하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속여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실은 어떠한 안 할 행동도 막 했다는 모함을 했던 말이에요. 모함을 했지만, 모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는 정의로운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 욕을 하건 말건. 오히려 오히려 사고 이러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나면, 박종현 선생님 책에서 132쪽입니다. 361 e에서 362에 a로 넘어가는 건데, “그 정의로운 사람은 태형을 당하고, 사지를 비틀리는 고문과 결박을 당하며, 두 눈이 불 지짐을 당하고, 마침내는 온갖 나쁜 일을 겪은 끝에 책형까지 당하고서야, 실제로 올바르게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올바른 것처럼 보이려고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움의 극치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정의롭지만, 오히려 부정의하다는 평판을 받아서 고문당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태형당하고 사지 비틀리는 고문과 결박당하고 두 눈에 불 지짐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정의에 극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 정의로운 사람과 부정의한 사람, 누가 더 행복한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서 그 중에 누가 더 행복한지를 얘기해라. 그래서 그 후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정의롭지만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글라우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하는 요구는, 그 이제 끝에 보면 누가 더 행복한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게 도대체 가능한 요구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남 속이고, 뭐 남의 물건 몰래 가져가고, 이런 것 다하면서도 정의롭다는 칭송을 막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남의 것 아무것도 안 훔치고, 그 대신 오히려 훔쳤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막 이제 그 감옥에 가고 뭐 벌 받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사람이란 말예요. 그 두 사람을 놓고서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지를 보여라. 그러니까 도대체 고문당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 정의로운 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좋은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한 건 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글라우콘의 요구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 좀 행복하려면 외적인 조건도 좀 갖추고 있어야지 행복할 텐데. 그렇죠? 내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행복하단 얘길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을 보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좀 이런 요구가 과연 가능한 요구인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행복의 그리스적 개념

먼저 그 요구, 글라우콘의 요구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복의 개념입니다.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에우다니모니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때 그 행복이라는 번역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번역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특별히 다른 번역, 우리말로 적절한 번역이 없기 때문에 행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는 다소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애인한테 자기야, 행복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 나 행복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그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행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어 에우다니모니아는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상태가 같이 있는 경우에만 에우다니모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번영의 상태, 뭐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번영이란 말도 좀 이상한데, 말하자면 웰-빙, 웰-빙의 상태가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자기야,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부인한테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잘해줘요. 부인한테 잘해주고 뭐 그러니까 어, 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남자가 판살림이 이제 뭐 한 서너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바람도 피고 있고, 판살림도 막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서 그냥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

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말에서 그런 경우에 그 부인, 아내가 행복한 건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사실 우리말에 행복도 완전히 주관적인 느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가 썩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객관적인 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부인이 이제 행복하다고 자기가 느끼면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에우다니모니아의 그 개념은 아닙니다. 에우다니모니아라고 할 때는, 내가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행복한 느낌을 가졌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탄살림을 뭐 여러 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만적인, 속아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에우다니모니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괴로워, 이 삶이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고, 에우다니모니아의 그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떤 그 스스로 만족할만한 그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데, 그 느낌이 자기기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그 조건상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그 근거가 사실인, 그러니까 근거들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그런 것이 에우다니모니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정의롭지만 이리저리 고문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예요. 고문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번영, 웰-빙의 상태에 있어 야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당하는데 어떤 번영,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 소크라테스의 당면문제 -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의 증명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구요. 사실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것을 보여주기는. 그걸 보여주는 작업이 『국가』 2권부터 10권까지 계속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도대체 뭐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부정의한 사람들은 어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다 바로 이제 그 글라우콘의 요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의한 사람하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행복은 그런데 이 경우는... 만약에 과연, 아까 이제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그 자체로 선택할만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 달라,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 달란 거예요. 정의가 그 자체로 좋고, 선택할 만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뭐랑 같은가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이게 같은 건 아닌데, 이것을 보이는 것이 요것을 보이는 것하고 같다고 지금 이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글라우콘이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종류의 좋음에 있다. 그 자체로 좋은 것, 그 자체로 좋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 요 세 종류가 있는데, 사람들은 정의가 세 번째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당신은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고 결과 때문에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 사이에서 밝혀야지 되는 것은 과연 정의가 그 자체로도 좋은지를 보여줘야지 된다. 그 자체로 좋은지를 보여주려면 뭘 보

여줘야 되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글라우콘이 요구하는 바란 말이에요.

▲ 칸트 식의 정의론 - 무조건적 선의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선택되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정의로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정의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정의로운 행동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면 무슨 뭐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든 말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지, 행복을 거기서 왜 따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칸트 식의 도덕관이 그런 거죠. 칸트는 바로 행복,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칸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의지, 무조건적인 선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행복도 고려하지 말고, 단순히 이것이 정말 나의 도덕적인 의무는 것을... 그걸 이제 정언명령이라 그러죠. 정언명령이란 건 무조건적인 명령이란 말예요. 칸트 같은 사람은 어떤 조건, 도덕적인 명령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거 하면 무슨 이득이 생긴다,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만 따져보자는 것이 칸트식의 정언명령이죠. 칸트가 이제 그 선의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그것이 진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라, 아무런 다른 외적인 조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행동 자체가 과연 선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져봐라, 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만 따져봐라. 좋은 것,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옳은 것, 이런 것만 따져야 된다, 이제 이게 칸트식의 주장이에요.

▲ 칸트의 정의론과 그리스인들의 정의론의 차이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생각은, 그리스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좋은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칸트식으로, 이건 행복이고 뭐고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해!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니까 한다, 왜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스 사상가들은, 이게 사실 이제 이 질문은 그리스 사상가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도대체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도덕적이면 어떠어떠한 좋은 결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지 되냐?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부도덕한, 그런 비도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도덕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좋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의무, 도덕적인 의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왜 의무인지, 나는 왜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지, 그것도 좀 분명치가 않고요. 왜 그 의무를 갖는지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의무론 얘기할 때, 신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하느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독실한 뭐 그 종교 신실한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답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느님 말씀?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하느님의 말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도덕적인 의무를 왜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의 삶을 실제로 정말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지가 좀 불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을 비롯해서 고대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들은 실천적인 관심이에요.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 소크라테스의 논리 - 해야 하는 것 =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소크라테스가 2권부터 이야기한 것, 글라우콘이 요구한 바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뭐 이러이러하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해, 왜 살아야 되나요? 이러이러하게 무조건 정의로운 삶을, 도덕적인 의무니까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하죠. 뭐 자식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도 도덕적인 삶을 반드시 사냐? 그렇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지금 다른 어떤, 내 욕구는 다른 것을 지금 원해가지고, 뭐예요? 다른 것,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다른 것을 한다. 그럼 왜 다른 것을 하냐? 뭐예요? 여기에도 좋은 게 있으니까. 의무와 좋은 것의 어떤 그 대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해야지 되는 것과 나한테 좋은 것,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좋은 것의 유혹에 빠져서 좋은 것들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보이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 하고 좋은 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야 되냐? 그게 좋은 것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요? 행복하니까. 너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려면 이거 해야지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대답이면, 아까 칸트식의 문제하고 비교해봤을 때, 행복 때문에, 행복, 이걸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의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 자체 때문이라는 말을 그 극단에 놓고서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칸트이고, 그게 바로 선의지예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 때문에만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런 의지가 그러

니까 그 자체 때문에만, 그 자체의 성격이 과연 도덕적인가 아닌가만 따져보고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 그 자체로서의 정의와 행복과 연결된 정의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할만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기준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정의로운 것이면, 그게 왜 그 자체 때문에 정의가, 그 자체로 정의를 추구하느냐? 행복하려고, 행복이란 것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애초에 글라우콘이 던진 질문 자체에서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한다는 말이, 칸트식의 그 자체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글라우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글라우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이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글라우콘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의로운 사람의 정의로운 일의 귀결들, 다른 귀결들에서 행복은 그 귀결에서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귀결들, 그러니까 평판이라든지, 그것에서 따르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요런 것 빼고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으면, 정의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인 셈이 된다고 글라우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과 그 결과라는 것을 구별할 때, 음... 지금 이제 그 구별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구별은 아닌데, 어떤 것이, X가 그 자체 때문에 좋다는 것은, X가 Y 때문에 좋다는 것하고, 양립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라우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X에 들어가는 것이 정의, 정의가 행복 때문에, 정의로우면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것과 행복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요 두 가지 얘기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글라우콘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엔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자체 때문에 좋은 것하고 반대되는 상황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 때문에 좋은 것, 그러니까 결과 때문인데, 이 때 결과라는 것은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되겠어요. 어떤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그 행위하고 독립적으로 생기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이게 뭐예요?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 이후에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결과 때문에만 좋은 것의 예로 신체 단련하고 무슨 의사한테 수술 받는 것을 예로 들었던 말이에요. 수술 받는 행위가 건강은 아니예요. 그렇죠? 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병이 낫게 된 것, 내가 쓴 약을 먹어서 병이 낫게 된 것, 쓴 약을 먹은 것이 행위라면 말이에요. 그 행위의 결과로는 쓴 약을 먹은 이후에 감기가 낫게 되었다. 감기는 약 먹어서 낫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염증이 낫게 됐다는, 행위 이후에 얻게 된 것, 염증이 낫게 되는 것은 약 먹은 것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약 먹은 그 행위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 정의와 행복의 관계

정의하고 행복의 관계는, 그러니까 정의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행복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때, 그건 뭐냐 하면, 정의로운 어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구성부분이 된 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복은 정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체 때문에 좋은 것하고 결과 때문에 좋다는 것을 구별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적어도 글라우콘이 얘기하는 그 결과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왜냐?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이...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밝히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의라는 것이 바로 행복의 구성부분인 거예요. 정의롭게 되면 그것과 별개로 나중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그 안에 정의라는 것을,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있고, 그것과 독립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나중에 생길 때, 그것을 이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의가 그 자체 때문에 좋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은, 정의로움이 있고 그것하고 독립적인 어떤 나중에 생긴 다른 것들, 그것 말고, 그 정의로움만 놓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얘기하자는 것이 글라우콘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 3교시 좋음이란 무엇인가

▲ 소크라테스의 정의와 윤리적 이기주의의 문제

이것하고 관련해서 흔히들, 그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윤리적인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을 보이게 되면,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습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왜 내가 도덕적이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도덕적인 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준단 말이 결과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구요. 말하자면 도덕적인 것이 나의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데, 행복도 결국 어떤 나의 행복이고, 그러면 결국 이기적인 것 아니냐, 도덕이라는 것은 역시, 또다시 칸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것을 다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도덕의 본질, 특히나 정의로움의 본질은 이타적인 어떤 행동들일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정의롭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키는 것의 나중의 어떤 좋은 결과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수고롭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하는 건 뭐예요? 처음에 그 내가 약속해준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겠죠. 내가 내일 뭐 널 위해서, 너 대신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주면, 해주는 일은 그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본질적으로는 이타적인 행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상식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분배의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가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안 나누고 내가 다 가지면 좋은데 나누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면 너한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한테 좋기 위해서 정의롭다, 나한테 행복하기 위해서 정의롭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거 다 이기주의에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라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 종류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나 글라우콘이 주장하는 바는, 특히 트라시마코스는 명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 트라시마코스가 명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가...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좀 더 부연하면 부정의는, 부정의가 이제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자기에게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기주의, 이타주의 문제로 이야기한건 사실, 이제 이제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 플라톤에 대해서, 사실 이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이기주의자 아니냐? 윤리적인 이기주의자 아니냐? 결국엔 정의가 자기한테 좋은 것을 심히 보여주어야만 정의롭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기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 경쟁적 모델로서의 좋음

지금 트라시마코스의 계명을 보게 되면요. 정의가 남에게 좋다는 것이 뭘 함축하느냐 하면,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함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의는 자기에게 좋은 건데, 이거는 그럼 뭐예요? 남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트라시마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실 글라우콘도 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을 이만큼 가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좋은 것을 못 갖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음이라는 것이 어떤 한정된 양이 있어요. 뭐 어떤 분배, 좋은 물건 나누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남은 이만큼을 갖고요. 그렇죠? 내가 원래 이만큼에서 이만큼 더 많이 갖게 되면, 남은 그만큼 못 갖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의는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원래 가져야 할 것보다 많이 갖는 거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니까 남한테는 나쁜 것. 이 사람이 더 많이 물건을 쟁겼으면, 다른 사람은 가질 것을 못 갖게 되겠죠. 남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의는 잘 지켜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딱 가질 만큼만 딱 가지고 더 안 가져요.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일을 시켜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좋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좋음의 어떤 경쟁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갖게 되는 것.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이런 질문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바로 좋음의 경쟁적인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한테 좋은 것이냐,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게 뭐예요? 그것을 서로 떼어놓고서 나한테 좋은 일이나, 자기한테 자기에게 좋은 것이냐, 남한테 좋은 것이냐, 라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거 짓된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 협동적 모델로서의 좋음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좋은 것이 남한테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가족이라는 공동체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가족 공동체 내에서 아버지가 그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좋을 일이야, 네 자식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기 좋은 일들이 뭐예요? 가족들 전체에게 다 좋은 일이에요. 물론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가족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너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질문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저게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타적인 행동이나, 던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배경 안에 이미 좋음이라는 것이 어떤 서로 경쟁적인 가치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갖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전제했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라는 것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좋음에 대해서 협동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딱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족 같은 경우가 협동적인 모델하고는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것

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아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혹은 남편에게 좋은 것이 아내에게도,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바람피우는 그런 가족이 아닌 경우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족의 성원들에게 좋은 것이 다른 성원에게도 좋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족의 어떠한 좋음이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어서, 내가 어떤 종음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좋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델을 종음에 대한 어떤 협동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이런 종음에 대해서 협동적인 모델을 갖게 되면 정의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냐, 하는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종음의 협동적인 모델의 틀 안에서는 말이죠.

▲ 종음에 대한 두 모델의 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그 대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가 있는데요.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과 소크라테스의 대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은 종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적인 모델을 갖고 있느냐, 어떤 협동적인 모델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 가지 대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가 무슨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종음이라는 것이 실제의 사회에서 협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종음의 협동적인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가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이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이상적인 어떤 사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고, 서로 그 남의 것을 뺏아먹으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도 그렇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보다 더 그렇고요. 내가 그 남의 것을, 그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유지가 안 되고 뺏겨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런 경쟁적인 모델이 극단적으로 구현되는 어떤 그 모습이 자본주의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음에 대해서 어떤 협동적인 모델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사회가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질 수가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 종음이나, 이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종음이 있는데 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 서로 뺏어갈 것이냐. 종음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특정한 이상 사회에서만 종음의 협동적인 모델들이 잘 구현될 수 있단 말인데요.

▲ 경쟁적 모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부정적 견해

그 얘기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종음이 뭔지 어떤 종류의 것이 종음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종음의 경쟁적인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재화가 만약 진짜 좋은 것이다, 경제적인 것...

협동적인 모델, 물론 어느 정도 협동을 해가지고, 그 잘 이제 서로 도와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느 정도의 정도 차이이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재화는 그것이, 협동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잘 들어맞는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재화가 있고, 재화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 재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도와서 뭐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누는 것, 협동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갖고 누가 얼마만큼 받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딱 제한된 어떤 것이니까. 좋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쟁적인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소크라테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적인 것,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편에는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좋냐, 안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인생 파탄난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사용하면 좋겠죠.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좋긴 하지만, 어떤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게 더 있으면. 그러니까 요것도 지위도 되겠죠.

▲ 좋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약간 곁가지이지만 설명을 하자면... 돈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것인 돈이겠죠, 뭐 돈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나. 아까 말씀드리기를, 케팔로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것보다가 다른 것이 더 추가되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돈은 여전히 좋긴 좋은 건데, 유일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많이 있는 것, 많이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불충분. 이 경우에는 여전히 돈은 좋긴 한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돈이 많이 있으면 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있는데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돈은 많고 첫 번째의 상황은 돈은 있는데, 지혜라고 할까요, 어떤 지혜가 없다, 어떤 도덕적인 삶의 지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훌륭한 삶을 못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 경우에는 불충한 경우인데, 이번 경우는 돈이 있는데 지혜는 없는 경우에, 이것이 해가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가 없으면 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돈도 없었으면 그냥 그래도 그러저럭 살수가 있었을 텐데, 복권 당첨 안 되었으면 그 사람 그냥 그러저럭, 특별히 훌륭한 삶을 살지는 않을지 몰라도 뭐 가정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갔을 텐데, 복권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이런저런 것 하다가 가족 파탄 나고 친척들 다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악인이 되었다, 만약에.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돈이 많이 있는 걸로 단순히 불충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이 파탄이 난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 거죠. 이 경우에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것.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단순히 많이 있으면,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정도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좋으면 그게 많을수록 더 좋아지겠죠. 물론 이제 그거로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든지 조금이라도 나아야지,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많이 있는

데 오히려 내가 더 나빠진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경우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돈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좋은 거다,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데 돈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음에 대해서 경쟁적인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못 갖게 되는 거니까.

▲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협동적 모델로서의 좋음 - 영혼의 건강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소크라테스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영혼의 어떤 훈련 같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영혼의 각 부분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영혼의 각 부분이 기능을 잘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가 이제 건강하면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영혼은 내 것인데, 그 영혼이 병들어 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을, 그것은 바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좋음, 정의로움이 결국에... 만약에 영혼의 좋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입지 않아요. 오히려 내 영혼이 잘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되게 만들어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나한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기능을 잘하고 어떤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어떤, 아까 얘기했던 협동적인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은 남에게도 나쁜 것,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의 그림하고 소크라테스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이 그리는 그림에서는 정의, 그 자기한테 좋은 것은 남에게 나쁜 것, 나한테 나쁜 것이 남한테 좋은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기한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것, 자기한테 나쁜 것은 남에게도 나쁜 것,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권부터 10권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장을 사실 증명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글라우콘의 요구를 받아서 정의가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자체로 좋은 것을 그 보이는 작업, 이것이 그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이는 작업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좋음에 대해서 어떤 협동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되냐,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영혼, 뭐 그렇게 영혼이 과연 있나요, 이야기하자면 아까 신이 과연 있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상태를 어떤 상태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영혼의 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읽어오시게 되면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갑자기 많이 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갈등과 영혼의 세 부분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주로 하게 될 텐데, 그건 사실 4권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1권부터 차근차근 읽었으면 4권까지 읽는 게 그렇게 부담이 덜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책을 받으시면 4권 끝나니까 300페이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다 읽으시면 좋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좋겠냐 하면, 2권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글라우콘이 문제제기하는 것, 글라우콘도 문제제기하고 이제 아테이만토스도 문제제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꼭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답을 해야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국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맥락이 있어요. 그게 한 145쪽 146쪽 뭐 그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상 국가를 세우는 이야기가 2권 중간부터 이제 4권 중간까지 꼭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좀 슬슬 읽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대강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시면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넘어가서 한 4권의 뒷부분 보면, 사실 4권은 좀 자세히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한 291쪽 정도부터 국가 이야기가 끝나고 영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291쪽부터 한 313쪽 정도 그러니까 좀 자세히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은 한 4, 30여 쪽밖에 안 되죠. 좀 이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도 시간이 닿는 한도 내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